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역대하에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므낫세의 뒤를 이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몬이 죽은 후에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덟 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은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모든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요시야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는데 백성들도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습니까?

먼저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벧엘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23:4). 또한 요시야 전에 있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하는 사람들도 폐하였습니다(23:5).

요시야는 계속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23:6).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이 남창의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곳이었습니다(23:7).

요시야는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더럽게 하여 성문에 있던 산당들을 헐어 버렸습니다(23:8). 또한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지나게 하여 몰록에게 드리는 제물로 드렸는데 요시야는 도벳을 더럽게 함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23:10).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 되었는데 유다의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고 태양 수레들을 불살랐습니다(23:11). 또한 요시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어 버렸고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에 세운 산당들을 다 더럽게 하였는데 이것은 예전에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이었습니다(23:12-13).

요시야는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리고 사람의 해골을 가져다가 그곳에 채웠습니다(23:14). 또한 여로보암이 벧엘에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한 제단과 산당을 불사르고 없애 버렸습니다(23:15).

요시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23:16). 예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벧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요시야가 행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준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개혁적인 조치들을 행하였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이 후에도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

다도 패망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회개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유다도 패망하였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요시야의 전 후에 있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범죄를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시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한 것을 보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 더럽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며 또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을 속죄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각종 기구들을 들여놓고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남창들을 두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바치는 범죄를 저질렀고 각종 제단과 산당들을 지어 우상들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지만 요시야 전후에 있던 왕들은 그 죄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전인 우리들을 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마는 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불태워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나 산당이 있다면 모두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인 순종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